

AUTHOR 주도홍

TITLE 『니고테모주의의 실체와
칼빈의 니고테모파 논박 연구』에 대한 논평

IN 한국개혁신학논문집

Vol.2 No.1 (1997), 230-237.

■ 논평

『니고데모주의의 실체와 칼빈의 니고데모파 논박 연구』
에 대한 논평

주도홍 교수(기독신학원대)

들어가는 말

먼저 東學 강경립의 박사학위 취득 논문(총 357쪽)을 대할 때, 기쁜 반가움과 함께 진정한 축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강경립 박사는 본인에게는 가까운 후배이자, 오래동안 변치않은 우정을 견지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이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부산 고신대에서 신학을 시작한 강경립 박사는 보다 웅대한 비전과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는 가운데서 총신대에서 신학수업을 계속하였고, 성숙한 마무리를 알차게 한 것이다. 이곳 총신대에서 강경립 박사는 초지일관 문학사(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를 그리고 결국 신학박사(Th.D.) 학위로 그의 오랜 세월의 비전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어찌 보는 이로 하여금 흥분어린 감동과 감격을 힘찬 박수로 보내지 않으리요!

강경립 박사도 인간인지라 유혹(?)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다름아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몇 번인가 본인(논평자)이 공부하던 독일 북훙대학교(Ruhr-Universität Bochum)에서 입학허가를 받기도 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누가 그 많은(?) 수고를 했을까를 짐작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리라(웃음). 그러한 흔들림이 그라고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강경립 박사는 결국 우리 조국의 身土不二임을 보여주며, 보수신학의 전당 사당동에서 오리지널 신학자가 된 것이다. 이토록 그는 한 마음으로 조국의 교회를 사랑한 신학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그를 바라볼 때, 조국을 일찍 쉽게 떠나서 남의 나라 학위를 취득한 본인으로서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가지로 생각되는 바가 없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그에게 첨언하고픈 말이 있다면, 지구촌 시대에 이제 바깥 바람도 과감하게 한 번 맛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은 세계학회에도 공헌하는 학자가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아울러 21년이라는 오랫동안의 수고의 결실인 강경립 박사의 학위 논문을 사정상 너무도 짧은 시간에 대하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영어를 위시해서 라틴어,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 실력을 전제로한 까다로운 16세기를 향한 교회사적 논문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논평자로서 원문을 확인할 책임과 여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겠다. 어떻게 바른 유익한 논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진다. 그렇다고 논평 약속을 파기할 수는 없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볼 것이다.

이미 들어간 말

우선 논평의 전개 과정을 말해야 하겠다. 삼부로 나누어 논평을 할 것이다. 첫째, 논문의 외형성을, 교회사적인 논문이 지녀야 할 특성으로서 구조와 형식 면에서 언급해 볼 것이다. 둘째, 내용적인 면에서 논평을 계속해 보고, 셋째, 논문의 논리성이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도, 전개와 결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그런 후 끝으로 본 논문의 공헌과 비판을 언급할 것이다.

본인이 논평을 부탁받은 범위는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제

7, 8, 9장이다. 그러니까 “칼빈의 반니고테모파 신학사상(1)(2)(3)”을 다루는 부분이다. 즉 강 박사는 여기서 칼빈이 어떠한 근거로 16세기 “종교적 假裝”으로서 가톨릭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상숭배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狹義的” 의미의 반니고테모주의자들을 논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칼빈의 우상숭배에 대한 입장을 먼저 살핀다(226-251). 그런 후 칼빈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를 당시의 가톨릭 미사를 가져와서 대조시키며, 구체적으로 언급한다(252-290).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당시의 생생한 기독교윤리의 목록들을 가져와서 기독교인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칼빈의 입장에서 매듭 짓는다(291-322).

칼빈의 반니고테모주의에 대한 입장을 이해코저 그의 신학을 원전을 근거로하여 시도함은 교회사 작업에 있어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기 위해서 강 박사는 지금까지의 학계의 연구를 종합하고 평가한 후, 자신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갖게 된다: “칼빈의 대표적인 반니고테모파 저작들을 그의 16세기 본문으로부터 상세히 분석하고, 아울러 그 저작들에 나타난 그의 반니고테모파 신학 사상을 정리하는 데 새로운 관심을 두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논자는 칼빈이 니고테모파를 논박함이 칼빈 자신의 신학사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刺戟劑 역할을 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10, 11). 그러니까 강 박사의 마지막 7, 8, 9장에서의 추구가 여기에서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이러한 강박사의 추구를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면에서 논평해 볼 것이다.

—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는 몇가지 점을 주시해 볼 것이다.

먼저 강 박사는 “칼빈의 신조어인 니고테모파”(323)를 “니고테모파” 내지는 “니고테모주의”의 명칭을 일컬음에 있어서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때는 “반니고테모파”, “반니고테모주의”라고 부름을 본다(10, 11 등). 물론 계속 읽다보면 혼동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겠으나, 보다 통일된 정확한 용어를 가져왔으면 한다. 마찬가지로 니고테모파의 “종

교적 가장"이라는 용어가 주류를 이루면서도, 매우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은폐적 행동", "가장 이론", "가장 신학", "속임 신학", "종교적 위선", "거짓된 타협", "우상숭배" 등으로 명료한 칼빈의 신학을 소개하면서 거꾸로 복잡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또한 인용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사적 논문이 얼마나 원문 인용에 있어서 정확해야 하고 충실해야함을 우리는 잘 안다. 지적하고자 함은 강 박사의 칼빈 등을 위시한 원저자들을 인용할 때, 보다 그대로 정확하게 제시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원문을 인용할 때, 따옴표를 가져올 때 있는 그대로 가져와야지 대충 자기의 말로 바꾸는 일 내지 요약은 삼가야 할 것이다. 이는 벌써 원저자의 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인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번역의 어려움을 간과하는 말은 아니다. 이러한 원문 인용에는 또한 최소한의 통일성 내지는 일관성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예, 각주에 원문 제시하는 일).

- 내용적인 면에서 다음 몇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 박사는 칼빈의 반니고테모파에 대한 신학사상 연구를 시작하면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다음과 같은 말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루터란과 칼빈주의자는 같은 개혁파이다. 그러나 그 명칭은 쾰링글리와 칼빈의 신학의 추종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는 그들이 루터란보다 더 확실한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228). 여기서 강 박사는 독일의 헤페 교수(H. Hepp)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해이며 비역사적 이해이다. 물론 루터와 칼빈의 개혁은 달랐다. 한 세대 후에 태어난 칼빈의 개혁의 대상과 앞선 루터의 개혁은 마땅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강 조점이 달랐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룩한 최대의 업적은 이신칭의였다. 칼빈은 이 근거 위에서 자신의 시대에 주어진 개혁을 감당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가들은 칼빈은 루터를 독일의 멜랑히톤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고 그의 신학사상을 보다 확실히 계승한 "루터의 가장 훌륭한

수제자”(J. Wallmann)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기에 강 박사의 여기서 루터와 칼빈의 비교는 나이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역사적 고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강 박사의 칼빈의 반니고데모파에 대한 25년 동안의 신학사상의 주류는 칼빈의 반우상승배론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매우 신선하게 낫설게 시작되던 논문의 주제가 일반화되어 버리고 있지 않는가 함이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적 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실 기대는 좀더 역사적 생생한 논쟁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생생한 논쟁을 만나기 보다는 일반적 또는 보편적 칼빈의 작품을, 대표적으로 《기독교 강요》와 그의 주석들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박사는 루터의 자유에 관하여 논하면서 루터의 1520년의 3대 명저 중 하나인 《기독교인의 자유》를 다루면서 “루터의 세번째 논문”(314)이라는 말을 하는 데, 이는 무슨 뜻인지? 루터의 3대 명저 중 하나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잘못 명명되고 있음은 학위의 격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도 해본다.

또한 이해를 위해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결론 부분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만 오로지 우리 체험의 구상화가 될 수 있으며, 신학은 오로지 인간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말로, 우리의 신학은 항상 얼마간 건설적이면서 동시에 파괴적인 방법들 내에서의 인간학이다”(329, 330).

— 논리성을 이제는 다루어야 하겠다.

강 박사는 협의적 의미의 니고데모주의의 연구의 단점을(예, 긴즈부르크, 324) 지적하면서도, 왜 또다시 본인 자신도 그러한 협의적 의미의 니고데모주의의 연구를 시도하였는지(9, 10), 그렇다면 둘 사이의 명확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니면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는지.

루터의 자유에 대한 이해(315-317)와 칼빈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보

다 심도깊게 다루어지고, 분명한 구별이 되고 있는지(322).

나가는 말

이제는 말을 마쳐야 하겠다. 공헌과 비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 공헌으로는 본 논문은 칼빈의 신학을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신학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이 점은 신학 연구가 탁상공론으로 그칠 수 있는데, 강 박사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든 삶은 결코 주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현대에 있어서 점점 숨어 들어가고 은익하는 우상숭배의 문제(하우츠 바르트)를 연구 주제로 과감히 가져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부각시키므로 21세기의 교회로하여금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을 교회의 현장을 잊지 않고 실천적 입장에서 강조한 점이다.

3) 교회사적 논문의 규범으로서의 공헌은 강 박사가 말할 수 없는 원전 연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실하게 원문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적 태도는 후배들에게 뿐 아니라, 교회사를 연구하는 모든 이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비록 원전이 절대부족한 이곳 한국에서 교회사 연구를 한다할지라도 그렇다는 말이다.

끝으로 비판을 한다면,

1) 우선 보다 더 선명한 교회사의 논문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어떻게 논쟁이 이 둘 사이에 전개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전개 과정 등이다.

2) 칼빈의 16세기 반니고테모파를 향한 논박에서 강 박사는 어느 면에서는 비판적 고찰도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현대의 문제

(예, 일제의 신사참배 문제)와 비교하면서 말이다. 이 점에 대해서 강박사의 견해가 있다면, 강박사의 3) 연구의 하이라이트인 “칼빈의 반니교 태모파 신학사상”(7, 8, 9장: 252-322)은 자신이 내리고 있는 본 논문의 결론(323-330)과 어떠한 논리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러한 점이 첨가된다면, 어디에 넣어놓아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